

화제외 포포

BBS '아침을 열며'

개그맨 서동균

“답답할땐 절에가요”

개그맨 서동균

“아직 초보라 연기면에서 어색하고 서투른 점이 많지만 법당을 찾아 마음 다스리듯 편안한 웃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때오르는 셋별, 불자 개그맨 서동균씨(26).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한 볼을 차지했던 故 서영춘씨의 2남3녀중 막내로 누나인 서현선씨와 같은 개그맨의 길을 선택했다. 그를 만나면 손목에 늘 차고 있는 단추가 먼저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KBS 코미디인 인턴1기로 선발, 3개월간의 연수를 거쳐 공채 13기 최종합격자 명단에 든 서동균씨는 대학시절부터 연예인으로서의 꿈을 키



▷속망받는 차세대 불자개그맨 서동균씨.

부터 절에 다녀 절이 내집 같다는 서씨는 법당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지금도 아산사 영화사나 원주 극장사를 가끔씩 찾아간다고 한다.

서씨는 드라마 ‘용의 눈물’을 패러디한 ‘웃음천국’ ‘아무기의 꿈’ 코너에서 형조판서 역할로 데뷔했다.

“처음 화면을 통해 나오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어 내가 어떻게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가면서 모습보다는 연기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서씨. 요즘은 KBS 2TV ‘열려라 코미디’(월요일 오후8시35분 방송)의 ‘좋은걸 어떡해’ 코너를 맡아 김미화씨와 한창 열연 중이다.

“코미디언 서영춘의 아들 서동균이 아닌 개그맨 서동균의 아버지 서영춘이라는 얘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어요.”

아무진 신세대 개그맨의 포부다.

김지연 기자

들뜬마음 다스려 '편한웃음' 선사 서영춘씨 아들 '연기 대잇기'

위였다.

가족을 물려 짐수한 원서, 설마 합격할까 라는 의구심 때문에 가족한테도 비밀로 하다 1차에 합격하자 흥기를 내 누나 현선씨에게 사실을 고백했다는 서씨.

처음엔 반대했던 누나 현선씨도 곧 이해해 주고 2차 시험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으나 3차 시험때 마음을 풀리고 격려해주어 이제는 모두 든든한 후원자라고.

“합격소식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더군요”라며 한 가족이 같은 일을 하는 어려움을 피력했다.

학교(관운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제대한 작년 8월. 진로 때문에 방향도 많이 왔다 는 서씨는 당시 마음이 스산할 때면 조계사를 찾아 마음을 달랬다. 어머니도 독실한 불자라 어려울 때

확증하기 쉬운 아침 출근 시간대. 한조각 계달음을 주는 선시(禪詩)로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다. 불교방송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1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을 열며’(PD 박상필)가 바로 그것. ‘아침을 열며’는 불교계 곳곳에 스며있는 문화 예술의 흔적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학평론가인 김재홍 교수(경희대 국문학과)가 진행을 맡고 있다. 1부는 ‘오늘의 선시’ ‘산사의 향기’ ‘문화예술의 향기를 찾아서’ 등의 코너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련되고 토요일에는 ‘아침글방’ 코너로 꾸며진다. 2부는 ‘불국토 초대석’으로 각계 인사들 초청해 이 시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월요일과 토요일은 ‘리포터 초대석’으로 교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준다. 청취자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코너는 단연 ‘아침글방’.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코너에서는 청취자들의 시나 편지를 성우가 읽어주고 김재홍 교수가 간단한 편지를 해준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아침을 열며’와 함께 한다는 이은주씨(27·수유동)는 ‘낭만적인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선시를 들으면 하루가 차분하고 즐겁다’며 청취소감을 말했다.

◆ Whatever lies there are in this world constituting the way to folly, combined with ignorance, forming the seat of doubt, they do not exist before Tathagata, for he is the best eye of men.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요 무지와 의혹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 그 눈은 인간 중에서 으뜸가는 눈이기 때문이다.

◆ If a man does not for ever dispel the sin as the wind dispels a mass of clouds, all the world

will be enveloped in darkness, not even illustrious men will shine.

바람이 구름을 걷어버리듯이 이 분(부처님)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 버리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뒤떨어 어 암흑이 될 것이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 He whose ideas of omens, meteors, dreams and signs are destroyed such Bhikkhu who has abandoned the sinful omens, wanders rightly in the world. 길조의 집, 천지이변의 집, 해

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길흉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권력할 것이다.

◆ Let the Bhikkhu subdue his passion for human and divine pleasure, then after conquering existence and understanding the Dhamma, such a one will wander rightly in the world.

수행자가 생존을 초월하고 이치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한계에 대한 탐욕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권력할 것이다.

◆ He who is not opposed to any one in word, thought or deed, who, after having understood the Dhamma perfectly, longs for the state of Nibbana such a one will wander rightly in the world.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역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권력할 것이다.

*dispel (v) (근심·의심 등을) 없애다 *illustrious (a) 저명한, 빛나는 *omens (n) 예언, 예시 *meteors (n) 천지이변, 유성우 *dead (n) 행동, 업적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대)737-888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청동 100%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높이 40.5cm

'97 문화유산의 해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 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가족지켜준 부처님



19 95년 11월 24일,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온몸이 떨린다.

목포 법주사 법당이 있는 날이었다. 서둘러 공양미 향 초 등을 챙겨 절에 갔다. 췌지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바쁘게 움직였다.

절에 도착해 주지스님을 뵈고 법당에 가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보살님, 오늘 오후 3시에 재(齋)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수고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동안 바쁘게 살다보니 절일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씀드렸다.

오전 10시 법회가 끝나자 신도들이 공양하러 가느라 하나 둘 법당을 빠져 나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몸이 순간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듯 했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애써 법당을 나오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 들이듯 난 그렇게 법당을 나올 수가 없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그동안 남들에게 해를 안겨준 나 그에게 살아왔지만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모면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저 절을 하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절을 하는 동안 알 수 없는 눈물

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마음 한 구석엔 사늘한 바람이 불어 왔다.

그제서야 법당을 나와 재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재를 준비하면서도 두려움을 없애느라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오후 3시, 재가 시작되었다. 재가 진행되는 동안 난 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재를 끝내고 재를 지낸 노부부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부부가 큰 길가에서 오토바이의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얘기를 했다. 그 노부부는 아마 오토바이에 탄 사람은 죽었을 거라며 끔찍해 하셨다.

아! 그 현장을 지나다 보니 남편 오토바이 번

호관이 떨어져 있는게 아닌가. 경찰차가 와 있었고 견인차가 사고차를 견인해 가는 중이었다.

"아니, 왜 우리 남편 오토바이가 여기 있지?"

"어른이 아니고 학생 들이던데요." 같이 집으로 가보자던 경찰의 말은 아랑곳 하지않고 난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집으로 뛰었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를 달리는 느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뿐이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족지가 꽂혀 있었다.

"어머니께 연락하려고 여기까지 전화해 봤지만 연락할 길이 없어 몇자 적습니다. 저는 지금 중생때문에 기독교 병원으로 갑니다. 오시는대로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딸 올림."

조카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

에 도착해 보니 두 아들 배행이와 기선이가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큰 아들 배행이는 얼굴 모습을 몰라 볼

정도였고, 온몸이 망가져 있었다. 다행히 기선은 형보다 나은 형편이었다.

저녁때쯤 사고승용차 기사가 왔다. 그러나 그 사람말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우리 아들 나이가 16세 무면허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자기가 피해자라며 화를 냈다. 사고가 어찌 되었건에 사람이 다쳐 누워 있는데 손실만 따지는 그 사람이 야속했다.

그러나 아무말 않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었다.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사는 진과거력이 많은데다 차도 자기 차가 아니었고 술 주정하다 경찰에 또 잡혀오는 일도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 친구들의 부탁으로 합의서를 써 주고 끝까지 가는 아니지만 해결을 보게 되었다.

두달동안 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동안, 그리고 내 아들들을 이해하는 동안 나는 '자비'에 대한 부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이 말발적인 내 가정사를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양심 (전남 목포시 용해동)



그림 · 이준석